FX Market Daily

2026-04-15

전일동향

전일대비 8.00원 하락한 1,481.20에 마감

14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 대비 8.00원 하락한 1,481.2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종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10.50원 하락한 1,478.80원에 개장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미국이 이란 해상 전체를 봉쇄하며 맞불을 놓았으나 물밑 협상 기대감이 일면서, 1,481.20원에 종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8.7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32.63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78.80	1485.60	1476.90	1481.20	1481.40
엔화	933.86	935.37	924.42	932.63	-
유로화	1750.91	1752.34	1732.63	1746.76	-

* 시가/고가/저가/종가: 달러는 익일 06:00(美 서머타임 해제 시 익일 07: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74	-3.96	-8.9	-17.01
결제환율(수입)	-0.42	-2.59	-6.66	-13.38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글로벌 리스크온 분위기에...1,470원대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3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1,481.20) 대비 8.25원 하락한 1,471.6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미-이란 휴전 2차 협상 기대가 촉발한 글로벌 리스크온 분위기에 하락 전망한다. 미국과 이란의 대면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험선호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발언 이후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뉴욕증시는 급등하며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더해 국민연금이 환헤지 비중을 상향하기로 결정한 점 또한 원화에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 요인들이 환율의 추가 하락에 힘을 실으며, 금일 환율 하락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입업체 결제 등 실수요 저가매수는 환율 하단을 지지할 전망이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466.50 ~ 1476.75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8276.38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8.25원↓
	■ 美 다우지수 : 48535.99, +317.74p(+0.66%)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56.68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6077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